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타노스를 심층적으로 분석

커뮤니티

문제 생성 조건

- 학습 목표: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타노스를 심층적으로 분석
- 문제 유형: 사료(텍스트) 해석형
- 교과 과목: 국어 >
- 세부 조건: 본문 3500자 내외, 난이도 보통, 3문제
- 문제 스타일: 3문장 이내로 간결하게
- 선택지 스타일: 각 선택지는 200자 내외로

제시문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강력한 빌런 타노스는 단순히 파괴를 일삼는 악당을 넘어, '우주 전체의 지속 가능한 존속'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운 냉혹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타노스의 행보는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설파한 통치자의 현실적인 판단과 이상적인 덕목에 대한 관점과 깊이 연관 지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키아벨리가 타노스를 직접 평가했다면, 그는 타노스에게서 탁월한 정복자로서의 역량과 동시에 현명한 군주가 갖추어야 할 치명적인 한계를 동시에 발견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타노스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은 그의 압도적인 목적 의식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타노스는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켜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잔혹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세웠고,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관되고 단호한 추진력은 그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주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요구하는 '비르투(Virtù)', 즉 자신의 강한 의지와 능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역동적인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타노스는 마키아벨리가 말한 운명, 즉 '포르투나(Fortuna)'의 변화무쌍함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운명을 거스르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 한 전형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어 기존의 우주 질서와

생성: 문제로

<https://munjero.xyz/> 여기에서 추가로 더 많은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화를 파괴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우주를 '재편'하려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우주 전체에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운명에 순응하기보다 맞서 싸우는 마키아벨리적 유능한 군주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타노스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도덕적 비난과 인류의 저항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필요악'을 행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궁극적으로 더 큰 선(善), 즉 우주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惡)을 행할 줄 아는 냉철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때로는 사악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교훈을 철저히 실현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노스는 공포심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극대화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군주가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타노스는 압도적인 힘과 그가 야기한 파괴적인 결과로 우주 전체에 심각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존재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조언을 철저히 실현한 것으로, 굳건한 신념과 이를 실행할 능력을 갖춘, 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타노스는 권력을 획득한 이후의 '지속 가능한 통치' 능력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는 것만큼이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노스는 이 부분에서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첫째, 타노스는 민중의 진정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민중의 자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비록 타노스가 자신의 행위를 우주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믿었을지라도, 그의 계획은 대다수 우주인들의 동의나 자발적인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력과 공포로 일시적인 복종을 이끌어냈을지는 모르지만, 마키아벨리가 경고했듯, '공포'는 군주에 대한 '두려움'이지 '증오'가 아니어야 합니다. 증오는 군주의 몰락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타노스는 우주인들의 깊은 증오와 저항 의지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그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타노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에 실패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력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확립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의 절대적인 무력을 통해 기존의 우주 질서를 일방적으로 파괴했을 뿐, 그 이후에 우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법과 제도, 혹은 통치 원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반 소멸'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으며, 그 행위 이후의 우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운영 계획이 부재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강력한 힘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타노스가 사라진 후의 우주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복구의 과제에 직면했던 것은 그의 행위가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파괴적 정복에 가까웠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타노스에게는 권력 장악 이후의 명확한 사후 계획이 부재했습니다. 그는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해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키는 임무를 실행한 후, 스스로를 '농부'라 칭하며 한적한 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국가나 공동체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통치' 행위라기보다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끝나는 '정복'이나 '임무 완수'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군주는 한 번 권력을 잡으면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노스에게는 권력 장악 이후의 통치 계획이나 비전이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는 그가 위대한 정복자는 될 수 있었지만, 결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통치를 이끌어갈 '군주'는 될 수 없었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라면 타노스를 두고 "목표 달성에는 탁월했으나, 권력 획득 이후의 지속 가능한 통치 능력과 비전이 부족했던 유능한 정복자일 뿐, 현명한 군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타노스의 이야기는 『군주론』의 핵심 교훈, 즉 '정복'과 '통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됩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극적으로 재편했지만, 그 이후의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점이 타노스를 단순한 '전략가'나 '정복자'에 머물게 했으며, 진정한 의미의 '군주'로 인정받을 수 없게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제

문항 1.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가 타노스를 평가한다면, 가장 적절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① 타노스는 잔혹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안정을 도모한 혁신적인 군주로서 마키아벨리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일관된 목표 의식과 비르투는 지속 가능한 통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② 타노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냉혹한 결단력과 포르투나에 맞서는 비르투를 보여준 유능한 정복자였으나, 민중의 지지 확보와 지속적인 법치 확립, 그리고 사후 통치 계획의 부재로 인해 현명한 군주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 ③ 타노스는 우주의 균형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무고한 생명체의 절반을 없앤 단순한 폭군이자 파괴자에 불과하므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적 관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④ 타노스의 행동은 혼란스러운 우주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때로는 잔혹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의 행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 ⑤ 타노스는 압도적인 힘과 공포심을 바탕으로 우주를 재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강력하고 현명한 군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높이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문항 2. 제시된 글에 따르면, 마키아벨리가 타노스의 어떠한 측면에서 현명한 군주로서의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 ① 타노스가 우주의 복잡한 자연 질서를 깊이 이해하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점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통찰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② 타노스가 우주 생명체 절반의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계획을 민중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군주의 민의 수렴 태도를 보여줍니다.
- ③ 타노스가 우주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도덕적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필요악을 행할 줄 알았던 냉철한 현실주의적 면모를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부합합니다.

- ④ 타노스가 절대적인 힘을 바탕으로 기존의 무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법과 합법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장기적인 통치 비전을 보여줍니다.
- ⑤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사용하여 우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혁신적인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 점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실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문항 3. 제시된 글에 근거하여, 타노스가 위대한 정복자는 될 수 있었지만 현명한 군주는 될 수 없었다고 마키아벨리가 비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타노스가 자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우주 전체에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진정한 민중의 자발적인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여 오히려 증오를 불러일으킨 점을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가장 큰 실패로 보았을 것입니다.
- ② 타노스가 우주의 혼란스러운 운명(포르투나)에 적극적으로 맞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파괴에만 몰두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마키아벨리는 비판했을 것입니다.
- ③ 타노스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이나 다른 생명체의 희생까지도 서슴지 않는 냉혹한 결단력을 보였지만,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 자체가 군주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마키아벨리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 ④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 이후, 우주를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법적, 제도적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마키아벨리는 지적했을 것입니다.
- ⑤ 타노스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 농부로 살기를 원하며 권력 장악 이후의 장기적인 통치 계획이나 비전이 부재했던 점을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군주가 아닌 정복자의 한계로 보았을 것입니다.

정답 및 해설

문항 1 해설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타노스가 마키아벨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정복자로서의 뛰어난 능력(목표 의식, 비르투, 포르투나 극복, 공포심 활용 등)을 지녔지만, 권력을 획득한 후의 통치 능력(민중 지지 확보, 법과 질서 확립, 장기적 통치 계획)은 현저히 부족하여 진정한 군주가 아닌 정복자에 머물렀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노스는 유능한 정복자였으나 현명한 군주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가장 적절합니다.

선택지 1은 타노스의 군주로서의 한계를 간과한 평가이며, 선택지 2는 마키아벨리적 관점의 핵심 분석입니다. 선택지 3은 타노스의 잔혹성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뿐, 그의 전략적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선택지 4는 타노스의 행동을 시대적 필요성으로만 보아 마키아벨리적 비판의 여지를 간과합니다. 선택지 5는 타노스의 군주적 자질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문항 2 해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서 마키아벨리가 타노스를 높이 평가할 점으로 제시된 내용은 '목적 달성을 위한 탁월한 능력' 섹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도덕적 비난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점과 '더 큰 선을 위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을 마키아벨리가 '때로는 사악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부분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1은 '자연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포르투나에 맞서는' 측면에 가깝습니다. 선택지 2는 '민중의 자발적 동의'는 오히려 타노스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선택지 4는 '합법적 통치 체제 구축'은 타노스가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선택지 5는 '혁신적인 자원 배분 시스템'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항 3 해설

정답: ②**해설**

제시문에서 타노스가 '현명하지 못한 군주의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 지점으로 '지속 가능한 통치 능력의 부재'를 들며, 그 세부 내용 중 첫째로 '민중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포'는 '두려움'이지 '증오'가 아니어야 하며, 증오가 군주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노스는 우주인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그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선택지 2는 오히려 타노스가 '비르투'를 통해 운명을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점으로 언급됩니다. 선택지 3은 타노스의 냉혹한 결단력은 칭찬받을 부분입니다. 선택지 4와 5는 타노스의 비판점으로 언급된 '법과 질서의 부재' 또는 '사후 계획의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직접적인 '군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기보다는 통치 전략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번은 가장 근본적인 통치 실패의 원인입니다.

AI 추천 학습 자료• **wikipedia.org**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6Fzi8mepaIVsVt5geiSzpoCa5mTWn-UvcJ08-kakhNPj-b4YRBeJefNOldQOrRZyHgZbFkoSRhoGJ9U1rhyHWQ0doRELKF0Nf1egeX3dz6UXR3O_DGm0MtbkVLs-Yc9xkiQnDlVq43cq24yHTjGbyFm92wA7IX-32w_mI1VjuM5vgos7YgzuStZq2fCe-IpicLnQL95JTKba-7YkWXQXpNyg==

• **namu.wiki**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VETr4iaKfuDIss8y1JVJ9SlyO5_NqIc6jhCll0Bef2wXXJlliBcbj1rzx5IHR1fzJvQ8BRuiddiZtBheoygKZJOD7KfvgkAGSpILbAwD5-6VRJ5gtRTyAaBYL8gpaNEvWxNtRRvQ9O25xHtN0QN10ytu6Pbh8c7oTBODoh3UN8NG4zDu194-vHrZc9D0wWz_pz8OL5zDNdw=

• **wikipedia.org**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Fk6TkMNI7n-3VClJCywmeq0M3m0ma9UhjS7wnpXrcvDafZWVfRr7s_nVlB4uQgaJ2XtIQMyTetKLNUoZPDz6MNDk_9XP4tIeUnlqljHnNxPrK2cYbSV4ILJ4tVw7CmcBqIjDWWw4wIPpq2Ic4nP9e-J-st1DYfvWFRWIGW4vX06-hUrIDgOFBxkP8LaQvZhZJJgvV47Ih

• **youtube.com**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GZbEOa26ATXSfrKL6blelHJdKpgxj8yIA3vPNJHaQXpOEu29GiC->

[xMMC98sP4lBgQtTUO1DeQ0tJf2EOLrnl2QHt9T5UhWBU6cUIzl2ZyP7UJeAorg-9-b9-GxUv64_U4d2UuszAtGiHgjfNrea13txXdpiosbQaw-i](#)

- **lh.or.kr**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ZIYQH7eMwb0AxQU4sI0aJtPF7gh-Fpsl0squhrzovSAStn6jTbxEemCfr0K-gopyU4LVkoSFmrWMypBAUbUph_SSstapXIw7qhTGjolx2-7Qedvl-j6LukcAvVMf9y9x7ciuE2w7lbcOztTjWUEINeh0ePZAGyzvXwPwn-xc7YyQk94ffl_-WPpMSP